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날조된 것이다

중국 대륙에는 몇년간 “통계, 통계, 7 할은 예측”이라는 민요가 유행되고 있다. 이 민요는 중공의 거짓통계를 풍자한 것이고 버젓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매체에서 중공의 금년 경제성장률이 11%가 좀 넘는다고 발표하였다. 이 숫자를 분석해보면 허구란 사실을 곧 알수 있으며, 완전히 중공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날조해 낸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를 말하자면, 전국에서 중대한 자연재해를 입은 성이 얼마나 되고 수재현황이 어떠한가에 대해 말하지 않고라도 단지 현 기업이 상급에 보고한 생산치 상황만을 보아도 곧 증명할 수 있다. 중국의 한 현의 상황을 예로 들면, 현에서 꾸린 기업이 60 여개 있는데, 이 기업들은 이미 10 년 전에 모두 파산되었다. 다수 기업들은 공장부지를 모두 매각 했고, 민영기업도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여 가련할 정도로 적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 파산된 기업들이 금년에 여전히 거의 1 억에 달하는 생산치를 가졌다고 보고했다. 그중 한 셔츠 공장이 가장 전형적이다. 이 공장 역시 10 년 전에 파산되었고 공장안의 설비가 매각되고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고 인적도 없다. 그런데 금년에 현지도자는 그 공장에 5 백만 원의 생산액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위에서 말한 통계숫자가 정확할수 있겠는가? 믿을수 있겠는가? 전국의 다른 현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보기만 해도 우스운 이런 일들은 중공사회에서는 버젓이 행해지고 참으로 웃을 수도 없다. 중공의 각급 관리들은 예로부터 통계숫자를 날조하는 것을 아주 “중시”하였고, 특히 “관련숫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통계숫자는 예로부터 모두 각급 관리들이 “정치상의 업적”을 자랑하는 근거였다. 이것으로 자신의 정치력이 적절하며 지도력이 유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둘째는, 중공이 각급 관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기준은 바로 현지의 경제성장률에 의거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공의 각급 관리들은 관직을 보장받고 위로 오르기 위해 숫자를 날조하여 “정치상의 업적”을 널리 알린다. 그리하여 “벼슬에서 숫자가 나오고, 숫자에서 벼슬이 나온다.”고 민중들은 풍자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통계숫자와 승진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동시에 각급 관리들이 감히 통계숫자를 날조할 수 있는 진정한 원인 임을 말해주고 있다.



신당인성탄절축제공연으로 신문예술단이 수상

파룬궁학원들로 구성된 신문 예술단이 공연한 신당인성탄절축제공연은 지난 12 월 18 일부터 26 일까지 뉴욕 맨하탄 비컨극장에서 서막을 열었다. 뉴욕주 중의회 소수당 수령 켄-터디스크는 뉴 욕주 정부와 민중을 대표하여 신문 예술단에게 상을 주었다.

대만민중들이 인권성화를 지지



국제인권일을 맞이하여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아세아 분단”은 지난 12 월 8 일부터 9 일까지 전 대만 13 개 현에서 동시에 “인권수호, 전민호응” 활동을 거행하여 중국인권퇴보를 질책했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제지시킬 것을 호소했다. 위 사진은 대만민중들이 전세계에 전달하는 인권성화지지서명을 하는 모습이다.



▶ 지난 11 월 28 일, 캐나다의 마터스와 데이비드길거는 “오 타와공민보” 에 문장을 발표하여 재차<중국에서 파룬궁학원 생체장기적출이 한창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 지난 12 월 10 일 저녁 6 시 스웨덴 파룬궁학원들이 시정부청사앞에 모여 노벨 상만회에 참가한 1,300 여명 유명인사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했고 박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그림감상:

눈보라 속에서



중국 유방대법제자 진자수(陈子秀)는 악경들의 강박하에 맨발로 찬 눈길을 뚫었다. 그는 두 다리가 얼어서 어혈이 졌으며 기여가다가 토하고 기혼해 쓰러졌다. 그는 지각을 회복하지 못한채 2000년 2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다. 위 그림은 화가가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폭로

연변 박해 소식

■ 왕창현 천교령 파룬궁학원 염채하(闫彩霞)는 지난 10월 13일 밤에 악경들에게 또다시 납치되었다.

■ 안도현 2도백하 파룬궁학원 리락우(李乐友)와 양씨누님(大杨姐)은 지난 10월 16일 오전에 백하림업공안국 악경들에게 납치되었다.

■ 도문시 파룬궁학원 지요재(迟耀才)는 지난 10월 21일 저녁 7시경에 왕창현 대흥구진 영벽촌 부근에서 진상자료를 나누어 주다 대흥구진파출소 악경들에게 납치되었다.

■ 도문시파룬궁학원 장계영(张桂英), 하숙려(夏淑丽)는 지난 11월 20일 오후, 교구에서 진상을 알리고 전단지 배포하다 도문시공안국향상 공안변방파출소 악경들에게 납치되었다.

■ 왕청현동광향목단촌 파룬궁학원 소운해(邵云海)는 왕청현백초구진신전촌 대대 회계원에게 진상을 이야기하다가 지난 12월 3일 백초구진 파출소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지금 왕청현중안간수소에 갇혀 있다.

■ 연길시파룬궁학원 강소매(姜素梅)는 지금 장춘녀자로교소 7대대에 갇혀 있다.

■ 도문시파룬궁학원 조리당(赵理堂)은 2007년 12월 20일에 광주시천하구법원의 재심판을 받게 된다.

바라건데 파룬궁학원과 정의인사들은 탄압진상을 널리 알려 박해를 정지하기 바랍니다.

불에 타지 않는 육신

지난 10월 17일, 태국남부 인랑부환난 구 월환난불사에서 90세인 고승(高僧) 파이츄바버송웨리아쿤(拍丘巴博颂威叻呀坤)이 원적(圓寂)하여 11월 8일 밤 9시에 화장의식을 거행했다. 30분이 지나 관과 조문화(吊唁花)는 열화속에서 재가루가 되었지만 그의 시체와 가사(袈裟)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친인들과 위원들은 즉시 령을 내려 화장을 중지시키고 그의 시체에 새 가사를 갈아 입혀 관속에 넣고 대와불(大卧佛)의 불당(佛堂)에 모셨다.



득도고승이 열반(涅槃)한후 육신이 썩지 않고 화장한후 사리를 남겨놓은 기재는 각국, 각 시대마다 흔히 볼수 있었다. 왜 육신은 썩지 않거나 불에 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실은 수련 과정에서 육신은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른 공간의 에너지물질로 전화되는데 이 물질은 우리 시공의 것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우리 공간의 시간과 물질의 제약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득도고승이 열반(涅槃)한후 육신이 썩지 않고 화장한후 사리를 남겨놓은 기재는 각국, 각 시대마다 흔히 볼수 있었다. 왜 육신은 썩지 않거나 불에 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실은 수련 과정에서 육신은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른 공간의 에너지물질로 전화되는데 이 물질은 우리 시공의 것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우리 공간의 시간과 물질의 제약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막혔던 귀가 열렸다

나의 이름은 소우(小宇)라고 부르며 올해 13살이고 흑룡강성변경소성의 초중생이다.

몇년전 아버지에게 귀따귀를 얻어 맞아 왼쪽귀가 멀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할수 없다고 하여 기차를 타고 성시병원에 갔다. 환자들이 많아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파룬궁을 수련한지 10여년이 된 둘째 고모는 나에게 설법록음을 들어보라고 권했다. 처음에는 음량을 높혀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얼마 안되어 약간 소리가 들렸다. 그런후 갑자기 “쿵”하더니 법륜공사부님이 설법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이리하여 병도 보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선인은 좋다. 파룬따파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어 이글을 적는다. 중공의 법륜공에 대한 날조는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